중국 저장성에서 천하 절경과 만나다

중국 여행의 백미는 '장엄한 스케일'이다.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와 신의 손길이 닿은 듯한 진기한 아름다움은 전 세계 여행자를 유혹한다. 한국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저장(浙江省)성 역시 보물을 품고 있었다. 진선이 산다는 타이저우의 선셴쥐, 세계 최대의 미륵불을 모신 쉐도우산, 맑은 계곡과 폭포가 즐비한 쉐도우산은 여행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명승지다.

글 · 사진 신재우 기자, **협찬** 잇츠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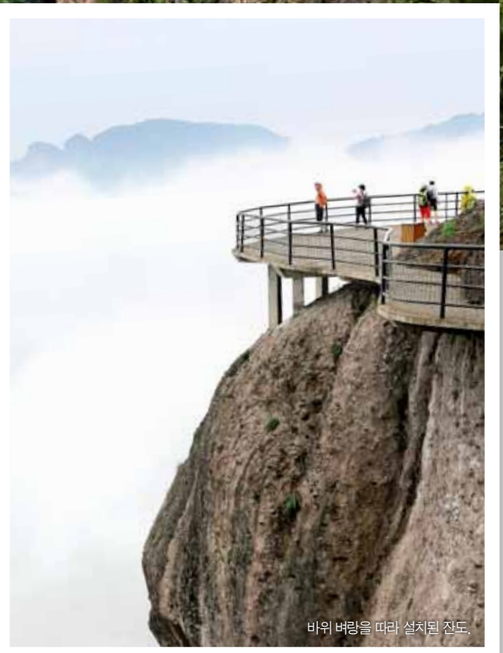
선셴쥐(神仙居), 신선이 사는 곳

속세와 구별되는 지극히 경이로운 풍경을 보면 '신선이 사는 곳이 이렇겠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무릉도원(武陵桃源), 선계(仙界), 별유천지(別有天地), 선경(仙境). 신선이 사는 별세계를 부르는 말도 여러 가지다. 선계를 그려보는 일은 상상의 영역인데도 중국에는 '신선이 살고 있다'고 대놓고 자랑하는 곳이 있다. 저장성 타이저우(台州)시 셴쥐(仙居)현에 있는 신묘한 풍경구 선셴쥐다.

이곳은 해발 700~800m 높이의 유문암 봉우리들이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다. 붉은 빛의 거대 암봉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봉우리 사이는 깊은 협곡을 이룬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산자락은 무성하게 자란 풀과 나무로 뒤덮여있다. 1억2천여 년 전 진행된 화산활동과 그 뒤에 이어진 단층 운동, 융기, 침식 작용의 결과물이다. 자연이 만들어 낸 기이함과 웅장함은 옛 사람에게도 찬양의 대상이었나 보다. 이곳은 원래 융안(永安)이라는 지명으로 불렸지만 북송의 진송 황제는 이곳을 다녀간 후 선셴쥐라는 이름을 내려 보냈다고 한다.

선셴쥐 여행은 피톤치드가 가득한 숲길에서부터 시작이다. 1인당 125위안을 내고 매표소를 통과하면 케이블카 승강장까지 산책로가 이어진다. 신선의 동네로 입장하기 전 몸을 정화하라는 듯이 편백나무와 아열대성 식물이 싱그러운 기운을 뿜어낸다. 발이 아직 땅을 딛고 있으니 고개를 하늘 위로 한껏 들지 않으면 암봉을 감상할 수 없다. 아직은 맛보기 코스지만 진귀한 모양의 봉우리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남근 모양의 봉우리는 여자가 보면 수줍어 한다는 뜻으로 수녀봉(羞女峰), 잘생긴 남자의 얼굴 옆모습을 닮은 바위산은 장군암(將軍岩)으로 불린다.

케이블카는 구름과 안개 사이를 뚫고 해발 700m 암봉 꼭대기에 도착한다. 고도 변화로 귀가 먹먹해지지만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과 하늘 공간을 압도하는 고봉을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든다. 중국의 그랜드캐니언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하다. 신선이 사는 곳에 왔으니 바위를 이리 저리 옮기며 산세에 취해볼 때다. 신선이 아닌데도 신선놀음을 가능케 하는 것은 잔도(棧道)다. 바위 벼랑을 따라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공 길이다. 낭떠러지를 한편에 두고 걷는 일이 쉽지는 않다. 처음에



바위 벼랑을 따라 설치된 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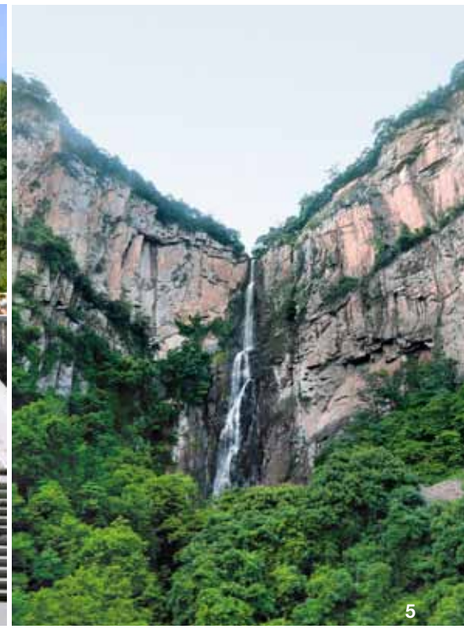
1 남자의 얼굴 옆모습을 닮은 바위산은 장군암. 2 선센쥐 비경을 천천히 감상할 수 있는 정자. 3 피톤치드가 가득한 선센쥐 산 아래 산책로.

는 손바닥에 땀이 나고 다리도 후들거린다.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걷다 보면 구름을 타고 이 바위, 저 바위를 거니는 신선처럼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선센쥐는 날씨에 따라 풍경이 크게 달라진다. 맑은 날은 기암과 원시림의 생김새를 자세히 볼 수 있지만 관광객은 구름이 짙게 낀 날의 몽환적인 풍경을 더 좋아한다. 아래에서부터 공간을 빽빽하게 채우며 올라오는 구름이 바위 8부 능선에 걸린다. 구름 위로 고개만 내민 산봉우리의 모습은 가히 환상적이다. 구름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늘과 잔도를 전부 뒤덮었다가도 한순간에 벼랑 사이로 가라앉기를 반복한다. 바람이 불면 구름은 속도를 내면서 이리저리 흘러가고 흩어진다. 구름의 거대한 움직임과 천 길 낭떠러지는 인간을 한없이 작게 만든다.

사람의 상상 범위를 벗어난 바위의 형상과 웅장함은 작명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불조봉(佛祖峰), 천관지궐(天關地闕), 쌍사수폭(雙獅守瀑), 천계창효(天鷄昌曉), 신상음간(神象飮澗). 부처님, 하늘의 문과 땅의 문, 폭포를 지키는 쌍둥이 사자, 새벽에 우는 닭, 물을 마시는 코끼리. 인간이 봉우리 하나하나의 기이함을 놓치지 않고 붙여준 이름이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동관·중관·천원·남관대를 거치는 선센쥐 여행은 3~4시간쯤 걸린다. 여정의 끝자락에는 남천교(南天橋)가 있다. 120m쯤 떨어진 두 암봉의 머리를 밧줄로 연결해 만든 구름다리다. 천 길 낭떠러지를 가로지르는 경험은 이만저만 아찔한 게 아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내려오면 신선 놀이도 끝난다. 인간계로 돌아오는 여행자를 위로하는 것은 원시림과 폭포가 어우러진 산책로다. 반나절 만에 끝난 신선 놀이가 아쉬운 표정이지만 신선이 될 수도 없다. 추억만 안고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



쉐도우산(雪竇山), 웅장하고 시원한 폭포군과 계곡

쉐도우산은 중국 정부가 최고의 경치를 보증하는 5A급 풍경구다. 1억5천만 년 전부터 수차례 발생한 화산폭발과 해침해퇴를 거쳐 형성된 해발 800m의 산으로 대자연의 웅장함을 뽐낸다. '쉐도우'(雪竇)라는 이름은 '산봉 동굴에서 눈처럼 하얀 물을 흘려보낸다'고 해서 붙여졌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쉐도우산은 폭포와 계곡, 연못을 따라 걷는 여행지다.

쉐도우산 풍경구는 닝보(寧波) 펑화(奉化)시 시커우(溪口)현에 있다. 풍경구 입구에는 정상까지 가는 셔틀버스가 다닌다. 등산 문화가 없는 중국에서는 밑에서부터 산을 직접 오르기 보다는 도로나 케이블카를 이용해 정상에 오른 뒤에 관광을 한다. 버스에서 내려 산길을 따라가면 상·중·하 폭포 3개가 잇따라 나오는 삼음담(三隱潭) 계곡을 볼 수 있다. 바위 절벽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는 시원하고, 초록을 머금은 연못은 영롱하다. 모노레일을 타고 계곡을 건너가면 높이가 200m에 달하는 천장암 폭포가 단숨에 시선을 빼앗는다. 엄청난 속도로 하강하는 물줄기는 땅에도 닿기 전에 공중에서 부서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물안개로 천장암 폭포는 몽환적인 느낌마저 풍긴다. 케이블카를 타면 대만의 초대 총통 장제스(蔣介石·장개석)가 1930년에 세운 별장 묘고대를 볼 수 있다.

쉐도우산은 중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는 불교 성지다. 미륵보살의 화신이라 불리는 포대스님이 경전을 전도한 곳으로 쉐도우사라는 천년 고찰을 품고 있다. 8천585㎡에 달하는 절의 규모도 놀랍지만 야외에 자리 잡은 청동 미륵불상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진다. 포대(큰 자루)를 메고 다니며 중생을 구제했다는 포대스님을 형상화 한 불상의 키는 33m이고, 불상을 받친 연꽃단을 합치면 높이가 57m에 달한다.

4 키가 33m에 달하는 쉐도우사 미륵대불 5 높이가 200m에 달하는 천장암 폭포. 6 저장성 청소년의 용춤. 7, 8 쉐도우사 옆에는 장쉐량 유페지가 있다. 시안사건의 주인공 장쉐량과 그를 72년간 지킨 자오이디의 동상이 서 있다.

1 민국시대 의상을 입고 있는 청년들. 2 장제스의 옛 집.
3 쑹메이링이 쓰던 침실 가구. 4 장제스 가족이 살던 풍호방의 문패. 5 두 마리의 용이 삼신을 호위하는 용마루. 6 민국시대의 분위기를 살린 인력거.

장씨고거(蔣氏故居), 장제스의 고향마을

시커우현에는 대만 초대 총통 장제스 일가의 거주지가 잘 보존돼 있다. 국공합작을 깨고 중국 공산당과 끝까지 대적하다 대만으로 물러난 군사지도자, 대만에서 수차례 대륙 진출을 시도한 중국의 적이었지만 쉐도우산 아래 그의 집은 중화민국 시절의 문화를 보여주는 유산으로 보호받고 있다.

장제스는 1887년 소금상인 장지총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의 가게이자 생가인 옥태염포는 장제스가 태어날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복원되어 있다. 그의 가족이 살던 풍호방은 방이 49칸에 달한다. 장씨는 여기서 4명의 부인과 함께 살았고 장남 장장궈도 이곳에서 태어났다. 저장성 재벌가의 딸이자 장제스의 4번째 부인, 정치적 동반자였던 쑹메이링(宋美齡)은 이 건물 앞에 금목서나무와 은목서나무를 직접 심었다.

장씨의 조상을 모신 사당과 프랑스 향촌 교육을 모방해 세운 무령학교, 공자를 모신 사당이자 쑹메이링이 쓰던 가구가 전시된 문창각도 둘러볼 만하다.

장씨의 유산은 강을 끼고 쭉 뻗은 큰길을 따라가면서 보면 된다. 이 길은 '삼리길'이라 불리는데 일종의 관광지구다. 거리에는 인력거가 넘치고 상점에서는 옛 과자와 의상, 기념품을 판다. 장제스와 쑹메이링으로 분장한 남녀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관도 있다. Ⓨ

INFORMATION

기본 정보

지리·기후

저장성은 북위 30도선 동중국 해안에 있다. 북쪽으로는 장쑤성과 상하이, 서쪽으로는 안후이성과 장시성, 남쪽으로는 푸젠성과 접해 있다. 쉐도우산이 있는 닝보는 양쯔강 하류에 발달한 항구도시로 항저우만 남쪽이다. 선셴쥐가 있는 타이저우는 닝보의 남쪽에 있으면서 동중국해와 접한다. 저장성은 아열대성 기후대로 여름은 무덥고 습하다. 한낮에는 30도 이상으로 기온이 올라갈 때가 많아 여행할 때는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가는 법

한국에서 저장성을 방문하려면 상하이 푸둥공항이나 훙차오공항에서 내려 버스로 이동하면 된다.
항저우만대교를 거치면 닝보까지 3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부산, 김포, 인천에서 출발해 푸둥 또는 훙차오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매일 운항중이다.
닝보와 타이저우는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2시간 반이 소요된다.

환율·전압

7월 20일 기준으로 1위안은 185.46원이다. 중국 현지에서는 우리나라 돈을 위안화로 환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출국 전에 환전을 해두는 것이 좋다.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현지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국의 전압은 220V, 50Hz로 우리나라의 전자 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플러그 모양이 달라서 우리나라의 전자 제품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볼 만한 곳

항저우만대교·해천일주 휴게소

항저우만대교는 상하이와 저장성 닝보를 잇는 총길이 36㎞(바다 위 구간 32㎞)의 해상 교량이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설계했고 공사비만 118억 위안이 들어갔다. 2003년 착공해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맞춰 개통됐다. 상하이에서 닝보까지 육로로는 120㎞ 거리이지만 이 다리를 통하면 36㎞로 줄어든다. 이 다리 위에는 호텔, 전시관, 음식점, 쇼핑센터 등을 갖춘 해천일주 휴게소가 있다. 휴게소에는 전망대가 있는데 높이가 146m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

묘고대

묘고대는 쉐도우산 천장암 서쪽에 있는 장제스의 별장이다. 1930년에 지어진 이 별장은 크기가 동서로 270m, 남북으로 500m 가량이며 삼면은 절벽이다. 장제스가 쓰던 집무실과 물건, 정자, 응접실, 산책로가 잘 보존되어 있다. 별장에서 바라보는 경치도 아름답다. 산 아래에는 사방이 푸른 나무로 뒤덮여 영롱한 빛을 발산하는 호수가 있다. 이름은 '정하호'로 인공호수다.

장쉐량(張學良) 제1유폐지

쉐도우사 옆에는 시안사건을 일으킨 군인이자 정치가인 장쉐량의 유폐지가 있다. 장제스 국민정부의 만주군 지휘관이었던 장쉐량은 1936년 공산군 토벌을 격려하러 온 장제스를 감금하고 항일 투쟁을 요구, 제2차 국공합작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 사건으로 장쉐량은 재판을 받고 설두사 옆에 있던 초대소에 유폐된다. 연금 생활은 그 후 53년간 이어진다. 첫 번째 유폐지에는 장쉐량의 동상과 그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들이 있다.